

日本の 教育改革 — 臨教審으로부터 現在까지 —

黑羽亮一

제 個人的 見解에서 臨時教育審議會 이후의 數年間の 教育 改革의 動向을 整理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教育에 관한 專門家集團(學校關係者, 教育學者, 教育行政擔當者)과 非專門家集團(政治家, 非教育行政擔當者, 評論家 등)의 宿命的 對立

教育問題에 관하여, 教育 專門家和 非專門家와의 意見의 差異가 항상 대립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專門家란 學校關係者, 教育學者, 教育行政擔當官을 가리키며, 非專門家란 政治家, 非教育行政官과 評論家 등을 가리킵니다.

日本の 教育史를 돌아다보면, 昭和의 初期(1926년)에서부터 專門家和 非專門家와의 對立이 顯著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非專門家가 中心이 된 審議會에서는, 學制改革의 必要性을 의했습니다. 특히 日本에서는 1920년대에서부터 中等教育이 急速하게 普及되어 왔습니다만, 中等教育을 더욱 보편화해야 한다는 主張은, 끊임없이 非專門家로부터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충분히 實施되지 못한 채 終戰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終戰後도 이와 같은 狀況이 계속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975년경에서부터 日本의 획일화된 平等教育, 혹은 日教組의 問題, 入試戰爭의 問題, 靑少年 非行問題 등이 매우 활발히 論議되었습니다. 教育의 荒廢라는 말이 流行한 것도 이 무렵입니다. 그 무렵, 日本經濟는 非常한 成長을 이룩하여, 世界 第2位에 오른 것은 주지하는 바 대로입니다.

그 때의 非專門家의 批判論理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즉 ‘日本 經濟는 잘 되어가고 있는데, 왜 教育은 잘 안 되어가는 것일까?’ 입니다. 이에 대한 專門家의 論理는, ‘만약 教育이 荒廢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急激한 經濟 成長에 犠牲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로 要約됩니다.

最近, 中央教育審議會가 教育에 관한 答申을 내놓았습니다. 거기에서도, 역시 教育이 日本 經濟의 高度成長에 犠牲이 되었다고 指摘되어 있습니다. 臨時教育審議會가 發足한 것은 1984년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나카소네(中曾根) 總理大臣의 熱意에 의하여 이 審議會는 發足했습니다만, 나카소네 首相은, 어느 쪽이나 하면 非專門家의 部類에 듭니다. 그러니까 臨時教育

審議會는 非專門家가 攻擊하고 教育專門家가 守備하는 식의 構圖로 審議가 展開되었다고 要約할 수 있습니다. 臨時教育審議會는 3年間 계속되었습니다만, 그 結果를 한 마디로 말한다면 결국 '守備하는' 쪽이 既成 教育의 體系를 지켜 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臨時教育審議會의 특징

臨時教育審議會는, 각 部會마다 審議하는 形式을 취하였습니다. 第1部會는, 주로 教育 理念, 教育 哲學에 대해 論議했습니다. 여기서는, '通學區域을 廢止하면 어떨까.'와 같은 극단적 意見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教育의 '自由化 論爭'이란 言語로 總括되었습니다. 결국 論爭은 '個性 重視의 教育'이란 것으로 收拾되었습니다. 이는 日本의 義務教育이 劃一 平等的 임을 인정하고, 보다 個性을 重視하는 것으로 해야겠다는 原則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 個性 重視는, 이 臨時教育審議會가 처음으로 내세운 것은 아니고, 戰前期인 1930年代의 改革에서도, 혹은 終戰 直後の 改革에서도 主張된 것임에 주의해야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日本의 學校教育은, 늘 個性의 重視를 主張하면서도, 그것이 實現될 수 없는 體質을 지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第1部會에서는 또 國際化와 情報化라는 것을 強調했습니다. 現在도 國際化는 重要な 課題임은 周知하는 바 대로입니다만, 情報化란 學校에서 컴퓨터 教育을 하는 그것만을 意味하는 것은 아닙니다. 第1次 産業 從事자와 더불어 第2次 産業 從事자가 急速히 減少하고 있습니다. 그와는 反對로 第3次 産業 從事자는 21世紀에 全産業 從事者の 7割을 超越할 것이라 豫想되고 있습니다. 學校教育은, 社會로 進出하기 위한 準備教育이라고도 일컬어집니다만, 第3次 産業 社會에서 살아갈 아이들의 이미지를 教師들이 가지기가 어려운 것이 事實입니다. 그 가운데, 教育은 어떤 모양으로 존재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學校에 있어서의 教育의 情報化에 包含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第2部會에 대해서입니다. 여기에서는 學歷社會에 대해 論議했습니다. 學歷社會에 대한 學問的 分析은 日本에도 있습니다. 所得, 즉 經濟를 分析한 것, 혹은 權力의 構造와 그 意識을 分析한 것 등 社會學의 成果는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臨時教育審議會에서는 社會學의 分析은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단지 '平生學習社會의 構築'과 같은 樂觀的 結論으로 일단 終結을 맞이했습니다. 中教審議 論議는 그 계속입니다.

第3部會에서는 初等中等教育을 擔當했습니다. '守備側의 委員, 즉 專門委員은 總人員數로는 3分の 1 정도였습니다만, 이 部會에서는 多數派를 占했습니다. 이 部會에서는, 最初부터 6·3制의 維持를 결정하고, 第1部會의 教育의 自由化에는 철저히 反對한다는 姿勢를 堅持했습니다.

다. 그리고 그 方向에서 終結했습니다.

第4部會는 高等教育에 관한 部會였습니다. 非專門家集團은, 日本의 大學의 保守的인 性向, 그리고 國立大學에서의 이데올로기상에 問題가 있음을 指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非專門家は, 개혁을 위한 具體的 플랜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반면, 日本의 初等中等教育和 高等教育에는, 文教行政 중에서도 색다른 紐앙스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初等中等教育을 담당하는 文部省의 部局은 철저한 現狀維持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高等教育을 담당하는 部局은, 改革의 意思를 매우 強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結果的으로는, 이 專門家の 의견이 第4部會의 結論이 되었습니다.

맺 음 말

教育이라는 것의 運營은, 본래 保守的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教育이 普及하여 大衆化가 되면 될수록 그 社會 안에서 堅固한 인프라스트럭처가 됩니다. 그 具體的인 改革은 容易하지 않습니다. 이 傾向은, 결코 日本에서 뿐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나 같습니다. 日本에서도 經濟의 發展 段階에서부터, 歐美와 동일한 狀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學校教育의 形式化·儀禮化 傾向이 요즈음 조금씩 進行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日本에서 學院이 번영하고 있는 狀況이라든가, 大學入試를 위한 豫備校에서 보듯, 學校外 教育이 盛行하고 있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 갈 것인지는, 正規의 學校教育을 擔當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커다란 課題입니다. 더욱이, 教育學에 學校教育을 지탱하는 責任이 있다고 한다면, 教育學者에게도 그 責任이 추궁되어야 할 時代가 왔다고 생각합니다.